

“86그룹 쉬운곳 말고 적지에서 출마하라”

〈80년대 학번·60년대생〉

새정치 혁신위, 친노중진 용퇴론·하방론 제기

호남물갈이론 대두땀 신당 창당에 영향 ‘주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친노 중진 용퇴론’, ‘86 그룹 하방(下放)론’, ‘호남 물갈이론’, ‘친노 백의종군론’ 등 각종 주장이 제기되거나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은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친노 진영의 만행 역할을 했던 중진들의 용퇴론이다. 계파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 당의 단합을 통한 총선 및 대선 승리를 호소하고 젊은 피 수혈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이해찬, 문희상, 한명숙, 정세균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

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설’이나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혁신위에서는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겨냥한 ‘하방론’이 제기됐다. 기존의 ‘쉬운 지역구’를 버리고 ‘협지’로 내려가 출마하라는 이른바 ‘적진 차출론’이다.

혁신위 이동학(33) 위원의 사전이지만 혁신위 내에서 특정그룹의 공천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진 용퇴론 등 ‘현역 물갈이’ 공론화에 계기가 될 것인 주목된다.

이 위원은 86그룹의 리더격인 이인영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태의 글을

통해 “86 그룹이 ‘하정정치’라는 비판만 받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야당의 고질적인 계파전쟁을 만들어낸 책임에서도 86그룹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적진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김영춘 전 의원 등의 사례를 들며 “정치인은 평소엔 정책으로 말하지만 선거 때는 출마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인영의 선택이 야권 전체의 혁신이란 큰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86 그룹을 비롯, 다른 당내 인사들에게도 계속 공개편지를 시리즈로 보내 내년 총선에서의 ‘혁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물 밑에서만 꿈틀렸던 ‘적진 차출론’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4선 이상의 중진 ‘용퇴론’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 민심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점에서 ‘호남 물갈이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삼곤 위원장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물갈이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으나, 당내에서는 정치적 존재감이 없는 중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등 현역 교체지수를 근간으로 인적쇄신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고 있다.

특히, ‘호남 물갈이론’이 대두될 경우, 신당 등을 향한 당의 원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노 백의종군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친노 핵심 인사들이 당의 화합과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친노 인사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인 발언 정동영, 당의장 사퇴 盧가 말려”

문재인·안철수 등 국내·외 지도자들과 뒷 얘기 담아

박영선, ‘누가 지도자’ 출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전 원내대표가 14일 본인이 20여년의 기자 생활과 10여년의 정치인 생활을 거치면서 겪은 국내외 지도자들과의 뒷얘기를 담은 책 ‘누가 지도자인가’를 펴냈다.

이 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문희상·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온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자신을 정계로 이끈 정 전 의장에 대해 과거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때 의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퇴하지 말라, 당이 흔들린다’는 당시 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열린우리당을 정 의장이 탈당하려 하자, 박 전 원내대표를 불러 “도리의 정치를 하라고 전하라. 고수기 때문에 말하면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 노 전 대통령은 정은찬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전 의원, 천정배 의원, 유시민 전 장관 등에게는 낮은 점수

를 주며 정 전 의장에게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손 전 대표에 대해서는 2011년 집에 수차례 찾아와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한 에피소드 등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에 대해서 “대선 때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탈당할 수는 없다고 고사했다”고 밝혔다. 대선 직전 안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 세간에서 구구한 추측이 나왔던 일도 문 대표와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문 대표를 만나 전대 출마를 만류하며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문재인뿐 아니라 박지원, 정세균 모두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두 사람 모두 안 나오면 더 당연히 안 나옵니다”라는 답을 들었다. 또 문 전 대표가 안 전 대표의 대선후보 사퇴 수시 간 전 “단일화 중재안을 같이 생각해보십시오”라며 중재안 수용의사를 내비친 일도 공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환뉴스

野,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 총공세

진상조사위원회에 ‘백신’ 안철수 발탁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한 ‘안랩’의 창업자이자,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사진) 전 대표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며 쟁쟁화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0~12명 이내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대표도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물론, 곧바로 기자간담회까지 여는 등 적



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치공세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사생활침해의 문제”라며 “여당이 함께하는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도 필요하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장관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

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작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온지

박주선 “8월께 신당 창당 움직임 구체화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15일 8월께 신당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아침 광주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빛고를 아침저녁’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4·29 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새정치민주연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바뀌어야 하고 친노계파 청산과 문재인 대표의 사퇴없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면서 “혁신위가 본질적인 부분은 덮고 지엽적인 부분을 혁신안이라고 내세우고 문 대표 체제를 보호하



고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하는 등 분방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신당과 관련해 그는 “현재 당내 혁신 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접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 비노계 의원들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8월이면 무성해진 논의 속에서 탈당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주홍, ‘지역신문지원법 10년 연장’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내년 12월31일 만료되는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 경영여건과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당시엔 250억의 예산이 지원됐



만, 점점 줄어 올래는 100억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폐지되면 긴급출연 근거가 사라져 지역신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연장하고, 더불어 정부의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처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투데이 경매

농성공원역 주유소부지, 근대로변 차량통행망, 커피전문점, 식당 차량관리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임접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담양군 대덕면 광주~20분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건물
대형차 진출입여건 좋음
대지 18234㎡ 건물 3672㎡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4천

서구 쌍촌동 운천역 5분거리에 위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부지, 상공용지적합
대지 902㎡
감정가 4억 4천
최저가 4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전산직(정규직)직원 채용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직군	채용 분야	인원	자격조건	비고
기술	전산직	0명	- 전문학사학위 이상인자 - 프로그래밍(CS/웹) 개발 및 유지보수 1년 이상 경력자 - 개발 툴 파워빌더 사용 가능자 - JAVA, PHP 개발 가능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DB 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접수기간 2015. 7. 22(수) ~ 07. 23(목) 15:00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ac.kr) 직원채용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